

경남부울경 1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개소, 상생 플랫폼 66종 113개 농산물 판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위치한 부울경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김병희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 김주영 울산광역시 농식품유통팀장, 동승욱 김해시 농식품유통과장, 농업최도영 지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울경 1호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울경 광역권이 협력해 조성한 첫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역 내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와 도농상생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직매장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경남 김해시 철산로 128) 1층에 120㎡(약 36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시·판

매되는 농산물은 총 66종 113개 품목으로 (경남) 31종 44개 품목 (부산) 16종 29개 품목 (울산) 19종 40개 품목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감자, 당근, 호박, 딸기, 버섯, 엽채류 등의 신선농산물과 전통주, 쌀, 고구마, 가공품, 장류, 차류, 요거트, 두부 등의 농산가공품이다.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부울경 직매장이 단순한 판매공간을 넘어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상징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산, 울산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2026년에는 부산과 울산도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체적으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남 도민의 집과 옛 도지사 관사 부지에 '경남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최성룡 기자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 강화해!

울산, 인도·방글라데시 방문 후 발열·두통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당부



울산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감염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말발굽, 돼지 등)과 접촉,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주요발생국: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최근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헉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치명률이 40~75%로 매우 높고,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격리가 필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감염관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시도 의료기관에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감염병 대책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고, 6개반 58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도·방글라데시 등 고위험국가 방문한 시민들은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섬에어(주) 내년 상반기 신규취항 추진

사전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소형항공사 운항 확대의 일환으로 섬에어(주)가 올해 12월 사전~김포 노선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규취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항은 단순한 시범 운항이 아니라, 항공사가 정식 취항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취득의 핵심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항공사가 안전 운항 능력과 운영 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운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노선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정시성·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섬에어는 ATR 72-600 신조기

를 투입해 시범운항을 한 뒤, 내년 상반기 AOC 취득과 함께 사전~김포·제주 노선 신규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사전~울릉 노선까지 확대해 서부경남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항공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경남도·진주시·사전시·한국항공공사와 섬에어가 체결한 사전공항 신규취항 협약의 구체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지자체는 재정·행정 지원과 공항 홍보를 약속했으며, 섬에어는 단계적 노선 확대를 공언했다.

또한, 2023년 9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하이에어가 올해 하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

년 상반기 사전공항 재취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이에어의 재취항은 사전공항 노선 다양화와 운항편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사전공항 정책토론회에서는 공항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전공항이 우주항공산업과 남해안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인프라 확충과 노선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계기로 도는 사전공항을 우주항공 허브공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성룡 기자

5극 3특 대구·경북 공동협력 체계, 본격 가속화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9월 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출범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통해 양 시도는 그간 공동협력 과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우선적으로 발굴된 중점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에는 대구·경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전략과제(안) 관련 실·국장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학계와 연구원, 그리고 언론 등이 참석해 토론회의 열기와 그 무게를 더했다.

TF 출범 이후 좁혀진 3대 분야 18개 과제(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들 과제의 추진 방식, 정책·호남·동남권까지 이어지는 국

대구-경북 민·관 공동 대응, 3대 분야 18개 공동 전략과제 토론회 개최



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대구·경북의 협력체계 확대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했다.

초광역 SOC 분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철도·도로·항만을 연계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충청·호남·동남권까지 이어지는 국

가 초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대구·경북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대구·경북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연계해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듀얼 산업벨트 형성을 비전으로 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대구·경북 전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초광역적으로 연결해 세계적 관광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양 시도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해 계획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같은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윤석 기자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의향서(LOI) 체결

스웨덴 헥스콘사, 문무바람 사업·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시가 세계적인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과 손잡고 청정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에 나선다.

울산시는 스웨덴 헥스콘사(社)의 문무바람 주식회사(이하 문무바람)와 함께 9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민간투자자 중 하나인 헥스콘사(社)와 함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

다. 헥스콘사(社)는 약 1,200억 원의 외국직접투자(FDI)를 신고하고, 총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문무바람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울산 앞바다 약 70km 지점에 75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협약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헥스콘사(社)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 및 주영균 문무바람 사업(프로젝트) 총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문무바람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및 향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 준공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인력양성에 협력한다.

울산시는 문무바람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정부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알이(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중심(허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

美재생의학연구소·의료개발기구 첨단재생의료 협력

협업체 운영 통한 재생의학연구소(WFIRM) 한국 분원 설치 기틀 마련



경상북도는 9일 세계지식포럼 연사자로 방한한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의과대학교 재생의학연구소(WFIRM) 부소장 제임스 유 박사와 재생의료개발기구

(ReMDO) 대표인 테리 윌리엄스와의 함께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경북대학교병원과도 재생

의학과의 바이오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북도는 1월 미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Winston-Salem)을 방문한 양국의 경제부처와 재생의학연구소(WFIRM)의 앤서니 아탈라 소장 간에 학술 연구·인적교류 중심으로 한 협력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연구·기술·산업 투자 전반에 걸쳐 재생의학 분야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 상용화 협력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바이오 생태계 강화 ▲첨단 재

생의료 기술의 상용화 가속하는 내용으로 협약(안)이 만들어졌으며, 경북대병원은 경상북도와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함께 국제협력 강화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의 프로그램 실행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의료개발기구(ReMDO)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관련 투자 지원 계획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과 협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재생의학연구소(WFIRM) 한국 분원 등 관련 기관의 경상북도 유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부산시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태세 확립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사전연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구·군 보건소 총 8곳이 주관한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훈련이다. 급정구보건소 주관으로 ▲토론키반 도상훈련(9.9.)과 ▲실행 기반 현장 훈련(9.22.)을 한다. '토론키반 도상훈련'은 훈련 사전 토의를 통해 대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과 돌발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고하는 훈련이다.

'실행 기반 현장 훈련'은 종합현장 대응 훈련으로, 기능훈련 및 현장대응활동, 자원 동원 등을 포함하는 훈련이다.

소규모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 다중탐지 장비 활용 방법, 개인보호복(레벨 A, 레벨 C 등) 착용의 등 보건요원의 역할을 실습하는 훈련이다.

▲동래구(8.25.) ▲부산진구

(9.10.) ▲수영구(9.12.) ▲기장군(9.18.) ▲남구(9.19.) ▲연제구(9.24.) ▲해운대구(9.30.)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제행사 및 전국체전을 대비해 초동조치 요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구·군별 생물테러 비축물자를 사전 점검했다.

조규율 국장은 "초동조치팀이 더욱 신속·정확하게 생물테러 의심 사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